

농작물 병해충 조기 발견 · 확산 차단

농진청, 중앙 예찰단 편성 · 운영... 전국 80개 시군 정기 예찰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식량 과수, 채소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 중앙 예찰단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작물별 주산 시군 작목반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15개 작목(식량 4, 채소 6, 과수 5), 80개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정기 예찰 활동을 벌인다. 지역 내 표본 농가를 선정해 병해충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상시 관찰·점검(모니터링)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더불어, 예찰 및 현장 점검 자료, 주산지 기상 정보(데이터), 생육 상황 및 병해충 발생 추이 등을 종합해 특정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우려 지역을 파악하고 정보제공과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 예찰단은 보리·밀, 양

파·마늘 등 노지 월동작물의 병해충 발생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히 기상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큰 양파·마늘에 대해서는 노균병(양파), 잎마름병(마늘), 고자라파리 유충(마늘) 등 병해충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2월까지 추위가 이어져 양파·마늘의 생육 재생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약한 식물체는 병충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3월 하순 전까지 웃거름 주기를 마쳐야 한다. 4월 이후에 웃거름을 주면 양파·마늘이 웃자라 병충해에 취약해진다.

노균병은 발생 시기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뉜다. 방제가 어려운 1차와 달리 4월쯤 나타나는 2차는 약제로 예방할 수 있다. 2차 노균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병 발생 초기 1회 방

제하고 7일 간격으로 총 3회 방제한다.

잎마름병은 겨우내 죽은 잎에서 검은색 포자 덩어리를 형성하고, 잎이 꺾이거나 잎끝의 상처, 햇볕으로 화상을 입은 부위 등을 통해 감염된다. 자춧빛 반점이 생기고 병이 진행될수록 잎 표면에 검은 포자 덩어리가 나타난다. 양파 잎마름병은 주로 노균병에 걸린 잎 주변에서 발생하므로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부터 적용 약제로 꼼꼼히 방제한다.

고자라파리 애벌레는 양파와 마늘의 뿌리 부분부터 파먹고 들어가 비늘줄기에 피해를 주며 심하면 줄기 속까지 해를 끼친다. 뿌리응애도 뿌리 부분의 즙을 빨면서 뿌리 생장을 저해한다. 지상부 줄기가 노랗게 마르면서 생육이 나빠지면 해충 발생을 의심한다.

약제는 작물과 흙을 충분히 적실 정도로 흠뻑 뿌려줘야 효과가 있다.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 방제하고, 발생 초기 유효성분이나 계통이 서로 다른 2~3개 약제를 7~10일 간격으로 번갈아 주면 효과적이다. 방제용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aps.rda.go.kr)' 첫 화면 '농약 검색'에서 확인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올해 3~5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한 것으로 전망돼 주요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마늘·양파재배 농가는 수시로 병해충 발생 여부를 살피고 병 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제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양파재배 농가는 노균병 2차 감염으로 수확량이 줄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 정기총회'서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김관영 도지사, 농가주부모임연합회 정기총회서 비전 제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린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는 도내 14개 시군 3,58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촌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북쌀 아침밥 먹기 홍보, 영농폐기물 수거, 흙몸 어르신 밀 반찬 나눔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현재 연 1천만 원 수준인 농업소득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회원들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며, 농업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의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기념하고, 최종 유치를 기원하는 성화 점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격려사에서 "도전정성의 초심, 도민 약속의 실천을 위해 초지일관(初志一貫)의 마음으로 민선 8기 10대 도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농업의 미래는 여성농업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aT 홍문표 사장, 일본 190년 역사 종자회사와 신품종 개발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12일 일본지역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하고, 현지 기업 및 한인 상인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홍문표 사장은 일본지역본부에서 올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홍 사장은 "K-푸드 수출확대는 대한민국의 식품 영토를 넓혀가는 일"이라며, 특히 일본이 K-푸드 수출의 핵심 시장인 만큼 환율 변동 속에서도 참외와 같은 유망 신품종 발굴 등 맞춤형 전략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사장은 다카이쥬묘(주)의 사토 나오키 종자개발 부문 이사를 만나 일본의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다카이쥬묘(주)는 우정훈 박사가 초대 연구동장직임자를 역임했던 기업으로, 우수한 육종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종자회사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착한 선결제 캠페인으로 소상공인 지원

6월 30일까지 캠페인 연장...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시작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민들이 음식점, 마트, 학원, 미용실 등 단골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됐다.

전북자치도, 시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이 적극 동참하며 현재까지 총 6억5,100만원 규모의 선결제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주시와 정읍시는 자체적인 선결제 운동을 확대 추진하며 지역 내 캠페인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인스타그램 등)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도내 매장에서 10만원 이상 선결제 후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총 183명이 참여했다.

이벤트 참여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마트와 학원이 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주(101건), 익산(34건), 완주(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벤트는 지난 2월 28일 마무리됐으며, 참여자 중 150명을 선정해 온누

리상품권을 지급했다.

당초 2월 28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캠페인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특히 3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추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상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내 상생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시군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지역 중소 드론 기업 성장 동력 확보'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첨단 장비 구축...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전주시는 12일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에서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추가 구축된 첨단 장비 4종에 대한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회는 운동목 전주시 부시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장비 구축 경과를 공유하고, 장비를 직접 시연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번에 도입된 고도화 장비 4종은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EMC 장비(전자파 적합성 검사) △셀레티브 솔더링 시스템(자동화 납땜) △안정성 측정 장비 △낙하 충격량 측정 장비로, 총 국비 30여 명이 투입돼 구축했다.

시는 이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뿐 아니라, 성능 검증을 통한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국내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국비 40여 원을 지원받아 문을 열었으며, 현재 드론 관련 기업 13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총 19종의 첨단 장비가 구축됐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에만 총 132개 기업을 대상으로 580회에 걸쳐 장비 지원을 제공하고, 매월 장비 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적극 지원해왔다.

/김옥기 기자



전북중기청-공영홈쇼핑, 지역 우수상품 판로지원 위해 협력

유통 전문가 18일부터 지방청서 근무... 중소기업 판로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은 공영홈쇼핑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판로마케팅 전문가(지역상생협력관)가 18일부터 지방청내에 상주(매주 2일)하면서 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

전북중기청은 공영홈쇼핑과 기술전문가(비즈니스지원단 등)와 홈쇼핑 MD, 품질관리, 마케팅, 정책사업 등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유통 전문가를 원팀으로 구성하고 코칭 등을 통해 판로(온라인 포함) 진출을 무료로 도와줄 예정이다.

전북지역내 생산 제품의 판로·마케팅 등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업(중소·소상공인)은 전북중기청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영홈쇼핑이나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을 준비중이거나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전북중기청 안태용 청장은 "이번 사업은 전북중기청과 공영홈쇼핑이 함께 지역의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홈쇼핑 등 온라인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